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, 세종청사 경비원·미화원 등과 새해 떡국 오찬 방한용품 전달...애로사항 청취·근무 여건 개선방안 모색 약속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,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근무하는 시설 용역원, 환경미화원, 특수 경비원 및 안내 도우미 대표 11명과 세종시 관내 식당에서 새해 떡국 오찬을 함께 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.
- 김 장관은 “청사 곳곳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청사 방문객들이 기분 좋게 볼 일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상쾌한 기분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.”라고 격려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일선 근무자 전체 (132명)에게 겨울 방한용품(내복 및 양말 세트)을 전달했다.
 - 또한,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일선 근무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.
- 근무자들은 “장관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새해 떡국 오찬 자리를 만들어 직접 일선 근무자들을 격려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.”라며, “우리 근로자들도 앞으로 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방문객과 직원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라고 말했다.
- 국토교통부가 입주해 있는 세종청사 6동에는 시설 용역원 35명, 청소 미화원 35명, 특수 경비원 54명, 안내원 8명 등 132명이 근무하고 있다.

2018. 1. 8.

국토교통부 대변인